

청소년 의상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현상

홍 기 현

건국대학교 의상학과

A Study of Postmodern Phenomenon in Clothings for German youth

Ki-Hyeon Hong

Dept. of Fashion Design, Kunkook University

(1997. 1. 8 접수)

Abstract

Since 1950 postmodernism shows strong influences in literature, architecture, art, clothing and other social and cultural fields. It's main concepts were individual, pluralistic, unconventional and deconstruction of social valu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influence of postmodernism to German clothing for youth. To achieve this purpose, magazines for youth ("BRAVO") from 1959 to 1994 surveyed including a number of interviews.

The characterizations of postmodernism in fashion are as follows:

Sport Clothing has an effect on Daily Clothing. Exotic phenomenon from south america, africa, asia shows strong in fashion. Subculture (Rocker, Hippie, Punker) is as anti-culture symbolically expressed in young fashion which is different from mother-fashion. This appeared in Germany in the 50s, 60s and 70s.

However, sub-culture-look in the 80s and 90s is presented only in outer style. It doesn't show any symbolic meanings. "Bricolage" ("mix and match")-concept was appeared in 60s and 70s only in fashion of subculture group. This concept generalized in standard fashion in 80s and 90s.

I. 서론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 사회에서 후기 산업 사회, 즉 포스트모던 사회로 접어들면서 제반 사회 현상의 변화가 독일 청소년의 의상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분석하는 데 있다. "다양성"이라는 범주 안에서 청소년들은 의상을 통해 탈계층, 탈성별, 탈연령, 스타일 복제 및 차용, 직접 만들기, 환경 의식 등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본 논문에서는 두드러진 스타일 복제 및 차용 부분만을

다루고자 하며 사회적 배경과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 한 지표(Indikator)로 평가될 수 있는 독일의 청소년 잡지 "BRAVO"지를 1958년에서 1994년 사이에 발행된 것중에서 508부를 5년 간격으로 수집, 분석했다. "BRAVO"는 청소년 패션과 관련된 의상란에 사진, 관련 기사 및 독자 인터뷰 내용 등을 실고 있는데, 예측되는 첨단 패션보다는 이미 청소년 사이에 유행되고 있는 의상의 정보 전달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직접 착용하던 일상복에

더욱 근접하리라 여겨진다.

II. Postmodernism의 특징과 세계 제 2차 대전 이후의 청소년의 변화

1950년대부터 문학, 건축, 미술 및 음악에서 시작된 포스트모더니즘 논쟁은 사회학, 철학에서의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최근에는 인간의 일상적 삶(Alltagsleben)과 연관된 문화적 변화연구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으로 논의되는 개인화, 다양화, 탈전통화와 규범의 해체 등은 이미 독일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 현상에서 관찰되며 이것은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경제적, 사회구조적인 발전의 귀결로 볼 수 있다¹⁾.

서비스 산업의 급속한 팽창은 교육과 이동 기회의 확대를 가지고 왔으며 이것은 수입과 여가 시간의 증가로 이어졌다. 현재의 기성 세대는 그들의 청소년기, 즉 산업 시대에 근면, 정확성, 절약, 직업에 대한 성실성이나 노력을 미덕으로 삼았다. 이와는 달리 후기 산업 시대의 청소년들은 기존의 가치 표준—인습적인 정치 구조, 직업 문화, 생활 방식, 사회, 문화적 규범—에 안주하지 않고, 자아를 발견하고 발전시키고자 노력한다. 사회적 Moratorium²⁾이 연장되면서, 이들은 문화적 잠재력을 지닌 계층, 또는 문화를 이끄는 계층으로 주목되고 있다. 청소년이 수용하는 문화적 변화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모드, 음악, 운동, 대중 매체 등에서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2차 대전 이후의 독일 청소년의 변화를 브링크호프(Brinkhoff)와 페르히호프(Ferchhoff)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청소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직업 청소년의 비율이 점차 학생으로 대체되었다. 둘째, 경험과 지혜로 청소년을 이끌던 기성세대의 권위가 기술, 청소년 문화 및 media의 발달로 약화되었다. 셋째, 청소년의 삶의 목표가 다양화되고 개인화되었다. 넷째, 청소년의 관심이 흥미 위주의 오락이나 물질로 쫓림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시장이 형성, 확장되고 있으

며 부모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졌다. 다섯째, 가족, 학교, 직장이 담당했던 청소년의 사회화에 드래집단의 의미가 커졌다. 여섯째, 양분화 되어 있던 각 성별의 정체성이 깨지면서 성별을 의식하지 않는 폭넓은 교제가 가능해졌다. 일곱째, 가정과 학교의 교육이 민주화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음악, 모드, 영화, 운동 등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³⁾. 이러한 변화 속의 청소년들은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자신들 고유의 정체성과 자신이 속한 사회 내에서 새로운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III. 포스트모던 시대의 독일 청소년 의상의 특징

III-1. 평상복에 나타난 운동복의 영향

(Sportkleidung als Alltagskleidung)

1) 스포츠와 청소년

청소년기가 의미있는 시기로 인식되면서 스포츠도 강조되었다. 19C 중반 이후 민족주의의 영향하에 보급되던 독일의 국민 체육은 20C 산업 사회에서 육체적 활동 및 놀이적 성격을 띠고 계속 확산되었는데 기성세대에 의해 조직, 관리되던 구조 안에서 발달했다⁴⁾. 2차 대전 후 후기 산업 사회에 접어들며 청소년 교육 기회의 급속한 팽창은 스포츠의 보급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교육의 기회가 여러 계층으로 확대되고 여학생이 증가되면서 학생 수의 팽창에 비례해 청소년 스포츠 club의 수가 증가하였고, 1970년대 이후에는 독일의 모든 계층, 모든 연령이 참여하는 생활 체육으로 확대되었다. 1985년 SINUS-Studie의 연구⁵⁾는 독일의 15~17세 청소년들이 여가 활동으로 운동을 매우 선호하며 이를 통해 또래 집단과의 공동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심성 발달을 돕는다고 보도하고 있다.

2) 독일의 운동복 발달과 평상복에 나타난 운동복의 영향

독일에서는 19세기 중반부터 학교에서 통이 좁은 검

1) H. Glaser, Kleine Kulturgeschicht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45-1989, Bonn 1991, p. 388 ff

2) 법률에 의한 지불 유예 기간에서 유래한 용어로 여기에서는 교육 기간의 연장으로 경제적 독립이 늦어짐을 의미한다.

3) K.-P. Brinkhoff/W. Ferchhoff, Jugend und Sport. Eine offene Zweierbeziehung, p. 30-34.

4) H. Bernett, Sport, in P. Rötling(Hg.), Sportwissenschaftliches Lexikon, Schorndorf 1973, p. 338 ff.

5) Sinus-Studie. Jugend Privat. Verwoehnt? Bindungslos? Hedonistisch? Opladen 1985, p. 110 ff.

은색 바지와 소매 없는 회색의 면셔츠가 체육복으로 착용되었다. 1920년대에는 긴소매 블라우스와 긴 바지를 입었는데 바지의 허리와 밑단에 고무줄을 대어 활동성을 강조했다. 2차 대전 이후에는 이 의복이 아동복과 여가복으로 입혀지면서 다양한 색상을 띠게 되었다⁶⁾.

70년대 말까지 평상복과 구분되어 수영, 스키, 자전거 경주, 각종 구기 종목 등 운동할 때에만 착용되던 운동복은 80년대 이후 청소년의 여가복과 일상복으로도 활용되었다. 80년대에는 스포츠 붐이 일어났으며, 이때의 스포츠는 에어로빅 등에서 보여주는 창조성을 강조하게 되었고, 체형을 강조하거나 활동하기 편한 평상복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1983년 5월호 "BRAVO"의 모드란은 "에어로빅 : 조화를 위한 의상"⁷⁾이라는 표제하에 "거리에서도 입을 수 있는" "재미있는" 의상과 기사를 소개하고 있다.

"에어로빅 열기가 넘친다. 몸에 끼는 Trikot를 입고 색레깅스와 재미있는 다리 보온 싸개를 덧입는다. 그 위에 T-shirt를 입으면 귀엽게 보이며 근육도 보온이 된다..."

사선 무늬의 Tricot을 입고 검은색-노랑색 팬츠를 덧입은 스타일은 운동복인 Tricot가 평상복으로 착용되는 경우이다. 또한 조깅복, 발레 Tricot, 무용복, 체조복 등의 운동복은 통학복과 평상복으로 자주 소개된다. 1991년 20호⁸⁾에서는 야구복 모드를 Jeans와 조화시키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노르웨이의 방풍용 자켓에서 발달한 아노락(Anorak)은 세계 제 1차 대전 이후 독일에서 스키복으로 소개되었다⁹⁾. 70년대 말까지 "BRAVO"에서 스키복으로만 소개되던 아노락은 80년대에 스키복, 통학복 및 여가복 등 다목적용 의상으로 청소년들에게 착용되었다. 또한 독자들이 취향에 따라 아노락에 직접 무늬를 그릴 수 있는 idea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1950년대 북미 사람들이 해변에서 입던 버뮤다팬츠¹⁰⁾

는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남, 녀 청소년 의상으로 정착되었다. 특히 90년대에 이 팬츠는 급속히 확산되었는데 이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청소년의 관심사인 "운동, 음악, 파티"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여가 생활로 디스코텍(Basketballhouse)에서의 농구 및 거리 농구¹¹⁾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운동시 상징적 언어는 흑인들에게서 유행하던 "cool"이라는 단어인데 의상과 관련해서도 자주 언급된다. 무릎까지 오는 버뮤다 팬츠, 품이 넓은 셔츠 및 복사머까지 오는 값비싼 농구화, 창 달린 모자의 착용도 "cool"한 스타일로 소개된다[그림 1]¹²⁾. Rap이나 Hip-Hop을 들으며 경쟁심보다는 놀이적 성격을 띤 거리 농구를 하는 청소년, 거기에 걸맞는 의상을 착용한 청소년의 모습은 의양을 중요시하고 감각적인 것을 선호하는 포스트모던 시대 청소년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묘사될 수 있다. 운동복은 본래의 스타일 그대로 혹은 변형된 형태로 청소년의 신체에 대한 관심과 비례하여 일상복, 통학복으로 유행되었다. 전혀 다른 스타일-예를 들어 자켓 등 정장류 및 복고적, 이국적 요소들-과의 match 및 겹쳐 입기, 장신



[그림 1] BRAVO 1993, 26호

6) I. Weber-Kellermann, Der Kinder neue Kleider. Zweihundert Jahre deutsche Kindermoden, Frankfurt a. M. 1985, p. 191.
 7) "BRAVO", 1983년 19호.
 8) "BRAVO", 1991년 20호.
 9) I. Weber-Kellermann, op. cit., p. 192.
 10) I. Loschek, Mode und Kostue mlexikon,

Stuttgart 1987, p. 125.
 11) Der Spiegel, "Spaß haben" 1993년 46호, p. 143. Spiegel지는 독일보다 앞서 미국에서 거리 농구가 유행을 했으며 흑인 중심의 Hip-Hop 문화 유행으로 유행이 가속화되었다고 보도했다.
 12) "BRAVO", 1993년 26호.

구와의 조화 및 직접무늬 그리기로 시각적 효과를 강조하여 청소년의 개성을 나타내며 착용된 운동복은 탈성별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III-2. 이국적 요소(Exotische Stilelemente)

“BRAVO”에서 1960년대까지는 이국적 요소를 소개할 때 western 스타일에만 한정했다. 70년대에도 간헐적으로 나타내다가¹³⁾ 80년대 중반부터는 “Ethno-Look”이라는 표제하에 의상의 형태, 문양, 색상, 직물에서 점차 여러 지역의 토속적인 특징을 대폭 반영했다. 이국적 장신구도 그 상징성과 함께 자주 소개되어 신비스러운 이미지를 부가했다. 이국적 요소는 소재면에서 천연 섬유 사용, 색상면에서 녹색, 갈색, 베이지색 사용 등 환경 친화적인 개념과도 일치하여 더욱 강조되었다. 80년대 중반 이후 청소년 의상에서 간과할 수 없는 이국적 요소들을 아프리카적, 라틴 아메리카적 및 동양적 요소로 나누어 관찰하고자 한다.

A) 아프리카적 요소

흑인 문화의 원조인 아프리카 문화의 특징은 음악, 스포츠, 의상 등에서 발견된다. 자민족 중심주의에 빠져 있던 백인 중심의 서구 문화가 타문화권 인정,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일차적으로 현상적(시각적)인 면에서 이국적 요소를 반영했다. 8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유행한 이국적 음악 장르 중의 하나인 Hip-Hop, Reggae 음악 등은 아프리카 토속 음악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이 음악을 선호하는 청소년들은 민속복 요소를 단순화시킨 상징적 모티프를 그들의 스타일에 차용하게 되었다. 아프리카에서 생겨나 자마이카의 민속 음악으로 발전한 Reggae 음악은 리듬과 가사의 상징성으로 인하여 서구인들에게 합리적이고 물질만능주의적 경쟁 사회를 비판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였다¹⁴⁾. 전형적인 Reggae의상은 빨강, 노랑, 녹색으로 표현되는 색상과 Cannabis잎 등의 문양, 머리 모양 및

아프리카의 토속적인 장신구로 특징지어진다[그림 2]¹⁵⁾.



[그림 2] BRAVO 1994, 24호

B) 라틴아메리카적 요소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의상의 문양, 직물, 디테일에



[그림 3] BRAVO 1989, 33호

13) 이미 70 년대에 동양적 요소를 수용한 미국의 히피 모드가 독일의 청소년들에게도 보급되었으나 당시 “BRAVO”의 보수적인 편집 의도와 히피 문화의 상징성이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70 년대까지는 전혀 소개되지 않고 있다.

14) Reggae음악은 일상적 삶의 애환을 주제로 사회적, 종교적 의미를 표현하는 수단이었다. R. Wynands 의 Do the Reggay, M nchen 1995, p. 19 를 참조하라.

15) “BRAVO”, 1994년 24호.

서 특징을 드러낸다. 1989년 33호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Inka 문양을 수놓은 “Gaucho” 스타일¹⁶⁾이 소개되는데 [그림 3] 원색의 다양한 색상과 라틴 지역의 독특한 직물이 이국적 요소를 나타낸다.

C) 동양적 요소

동양적 요소 중에는 중국의 인민복이나 한자 문양이 가장 많이 등장하며 일본 문자도 문양으로 활용된다. 상의나 하의의 문양으로 혹은 장신구의 문양으로 소개된다. 1993년에 소개된 음양 팔찌는 “모든 장신구는 각각 정해진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행운을 가져다준다.”¹⁷⁾는 설명과 함께 착용을 권하고 있다.

기존의 서구 문화 우월성에서 벗어나 타문화를 수용하는 현상은 다른 문화 현상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포스트모던 사회의 특징이다. 미지의 신비스러운 이미지와 결합하여 인간 상호간의 관계를 내포하는 상징성을 띤 장신구들이 소개된다. 이것은 문명화된 산업 사회의 비인간적인 관계에 대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인간 관계의 전환, 즉 인간성 복귀를 암시한다.

III-3. 하위 문화적 요소(Subkulturelle Stilelemente)

포스트모던 사회에서는 하위 문화적 요소도 의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의상사를 살펴보면 50, 60, 70년대에 나타났던 하위 문화 집단 의상을 서구의 젊은이들이 수용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BRAVO”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는 잡지사와의 Interview를 통해 “BRAVO”에서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았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는 70년대 초까지 독일 사회에서의 하위 문화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을 반영한다. 60년대 말까지 이 잡지의 독자층인 청소년들이 직업 청소년들인 점으로 미루어 중류층 청소년들에 의해 주도되던 히피 문화는 의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80년대 이후 이 잡지는 하위 문화 주제를 더 이상 금기시하지 않는데 이 점 역시 대중 매체에 나타나는 포스트모던시대의 한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다.

1) 하위 문화 집단과 그 외양적 특징

A. Rocker

50년대 중반 미국에서 생겨난 Rocker는 Rock'n

Roll 음악에 종사하던 가수 및 열광하던 청소년 팬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외양적으로는 검은 가죽 상의, 검은 가죽 바지 혹은 Jeans, 군화 및 못장식 장신구를 착용하고 오토바이를 타는 등 통일된 상징 체계로 소속감 및 결속력, 자체 내의 계급성, 공격성, 남성다움을 나타냈으며 세대간의 갈등과 정치적, 사회적 문제 등을 담은 노래 가사로 자신들의 내면적인 문제를 나타냈다. 기성세대에게는 “반항하는 청소년상” 혹은 “폭력적인 청소년상”으로 각인되었다¹⁸⁾.

B. Hippie

60년대 중반 미국에서 발생한 히피 운동은 70년대에 독일에도 외양적 스타일의 특징과 함께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일명 Flower-Power-Generation이라고도 불리던 이들은 주로 대학생을 주축으로 한 중류 계층 지식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참전반대, 기존의 성적 금기 타파를 주장하고 성장 일변도의 경제 구조를 비판했다. 또한 기성세대의 획일화된 사고, 과소비, 권위, 경쟁 의식 등에 반발하였고 비서구적인 문화에서 심미적 모티브를 찾고자 노력했다. 자연 친화, 마약 복용, 인도를 비롯한 동방풍의 스타일 모방, 관습을 벗어난 복장 착용 등을 통해 기성 세대에 항거했다. 원형 그대로의 이국적 스타일, 개성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인 스타일, 즉 기존의 스타일과는 다른 특색있는 의상을 착용했다¹⁹⁾.

C. Punker

1977년 영국 경제의 침체에 런던의 “Garabands”는 음악을 통해 기존의 음악 스타일에서 벗어나 인습적 사회에 항거했다. 이들은 기성세대에 대한 분노와 항거를 기존의 미적 개념을 거부한 추함 등의 표현으로 나타냈다. 또한 상업적으로 대형화된 기성 세대 문화에 반발하여 “small is beautiful”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대중과 보다 가까이 할 수 있는 연주를 통해 호응을 얻었는데 이들을 Punker라 한다. 음악뿐만 아니라 외양에서도 말총 머리, 충천연색의 머리 염색, 화장, 검은색 바지, 바지위의 그림, 구멍 뚫린 스타킹, 안전핀 장

16) “BRAVO”, 1989, 33 호.
17) “BRAVO”, 1993년 34 호.

18) G. Cremer, Die Subkultur der Rocker. Erscheinungsform und Selbstdarstellung, Muenchen 1991.
19) D. Baacke, Jugend und Jugendkulturen. Darstellung und Deutung, Weinheim-Muenchen 1987, p. 44.

신구, 개복절이 등을 통해 기성 세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고, 정돈된 복장에 반하는 성별 구분이 모호한 추함의 미학을 연출했다. Punker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핵심적 개념인 해체주의 및 절충주의 개념을 이미 자체 내에서 보여 주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하위 문화 집단원들은 독특한 스타일을 통해 자신들이 속한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타집단에 대한 구별을 나타내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심미적 수단은 청소년기의 충동 욕구와 상상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데 큰 역할을 하며 인생의 과도기에 있는 이들은 기성 세대와의 갈등을 심미적 수단을 통해 해소하고자 한다. 청소년들은 심리적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social world)에 대한 소속의 욕구가 있으며 동시에 개성을 강조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심미적 행위를 통해 일정한 단체, 또래 집단, 하위 문화에 대한 동일시(Identifikation)를 드러내고 있다. 한 집단내의 동일한 스타일은 타집단에 대한 소속 집단의 소속감을 더욱 견고히 한다. 아울러 한 집단내에서 소속원들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개인적 차이를 나타낸다. 즉, 이들에게는 획일성과 독창성이 공존한다.

그들이 표현하던 스타일들은 상업화되어 일반인들에게도 수용되었으며 집단원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했다. TV와 잡지를 비롯한 대중매체는 시각적 특징을 강조하는 청소년 문화의 보급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즉, 지속적인 보도는(부정적 시각일지라도) 하위 문화 집단들의 행동과 미적 표현 특성을 시청자나 독자들에게 익숙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2) 청소년 의상에 나타난 하위 문화 요소

하위 문화 집단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표현하였던 하위 문화 스타일은 80년대에 이르러 일반 청소년들에 의해 모방되기 시작했다. 하위 문화 집단이 나타내고자 했던 상징성은 이들에게 있어서 희석되고 다만 외양적인 스타일 모방만을 중요시한다. 또한 개개인이 자기 다른 하위 문화집단의 스타일 요소를 수집하여 동시에 착용함으로써 본래의 상징적 의미는 더욱 소멸한다. 특히 하위 문화 집단원들의 소속감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 수단으로 애용했던 장신구는 본래의 상징적 기능이 시각적, 심미적 기능으로 대체되었다[그림 4~6].



[그림 4] BRAVO 1984, 50호



[그림 5] BRAVO 1993, 24호



[그림 6] BRAVO 1982, 13호

III-4. 복고적 스타일 차용 및 재생(Nostalgische Stilzitate und Recycling)

경제적 성장을 최고의 기치로 삼았던 70년대 중반까지 "BRAVO"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스타일을 소개하는데 반해, 80년대 이후에는 복고적인 스타일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소개된다. 어느 특정한 시기의 스타일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대의 스타일이 공존한다. 이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건축, 음악 등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으로 옛 것을 그대로 활용하여 입는 방법과 복고적인 모티브를 변형, 활용한 의상 등으로 나뉘어진다. 80년대 이후의 복고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0년대 이후 Second-Hand-Shop, 고물 시장(Flormarkt), 미군 삼점등 중고품 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유니폼이나 민속복이 자주 소개된다. 중고품 의복 착용은 경제성 및 각자의 독특한 개성을 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잡지는 부각시키고 있다.

60년대말 학생 운동시 leader격인 학생들은 특이하고 공격적인 자신들의 이미지 유지와 값이 싸다는 장점 때문에 중고품 의복을 애용했는데 이는 그들의 삶의 방

식, 세계관, 정치적 신념과 상응했다고 볼 수 있다²⁰⁾. 이러한 현상 역시 하위 문화로 간주되어 "BRAVO"에서는 70년대까지 중고 의상은 등장하지 않는다. 80년대 이후 경제성과 개성을 장점으로 부각시키면서 복고적 스타일이 자주 소개된다.

"쓸모 없는 물건을 고물 시장에서 싸게, 혹은 무료로 얻을 수 있다. 상상력과 안목만 있다면 값비싼 boutique 제품보다 더 훌륭한 효과를 낼 수 있다..."²¹⁾

의상과 관련된 독자와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복고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나는 검은 스타킹, 50년대식의 하이힐이나 장신구를 애용한다. 또는 Jeans와 같이 입는 petticoat 착용도 좋아한다. 이 민속복들을 중고품, 고물 가게 등에서 구입하는데 50 마르크 이상을 지불한 적은 없다."

"나는 월 40마르크를 의류비로 지출한다. 옷을 구입할 때 보통 어머니께서 50%를 부담해 주시고 나머지는 내가 감당해야 한다. 가죽옷 같은 비싼 옷은 어머니가 지불하신다. 나는 월 100 마르크의 용돈을 받는다. 나는 현 옷을 팔고 다른 의류를 구입하기 위해 중고품 상점을 자주 들른다..."²²⁾

1988년 겨울 상품 소개²³⁾에서는 문헌의 중고 의류 전시회 소식을 실고 있다. 45명의 독일 중고상들이 물품을 제공한 전시회인데 "BRAVO"는 이 상품들이 어떻게 평상복으로 착용되는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면, 군복 상의와 Jeans의 조화, 뱃사람 상의를 미니 원피스로 전환한 것, 페티코트를 겹옷으로, 남성 상의를 미니 원피스로 응용할 수 있는 예들을 소개한다. 이 의상들은 각기 다른 시기, 성별, 직업에 의해 다르게 착용되던

20) M. Grob, Das Kleidungsverhalten jugendlicher Protestgruppen in Deutschland im 20. Jahrhundert, Münster 1985.

21) "BRAVO", 1984년 50호.

22) "BRAVO", 1988년 2호.

23) "BRAVO", 1992년 18호.

24) "BRAVO", 1988년 2호.

의상들이었는데 청소년 의상으로 전환되어 입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직접 만들기들 통해 복고풍 장식을 부착하는 것으로 효과를 내기도 한다.

80년대 중반 이후 청소년들의 빈번한 중고품 상점에 서의 구매는 저렴하고 질 좋은 소재로 만들어진 의류에 상상력을 가미하여 개인의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는 운동복, 이국적인 요소들이 혼합되며 50~70 년대에 나타났던 하위 문화 집단 의상의 모티브들이 다른 스타일과 조화되어 포스트 모던적 절충의 효과를 더욱 강조한다.

IV. 결 론

산업 사회에서 포스트모던 사회로의 발전은 독일의 사회 제헌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가족이나 종교 등 권위적 집단 속에서의 자아에서 독립적인 자아로의 변화를 겪은 청소년 계층은 삶의 가치뿐만 아니라 행동 양식에 있어 다양화된 모습을 드러내며 이러한 변화는 본 연구에서 관찰된 그들의 다양화된 패션에서 관찰되어진다. 50, 60년대의 산업 사회에서의 청소년 의상의 특징은 기능적 디자인과 합목적적 의상 착용, 기성세대의 모방으로 압축할 수 있는 인습적인 청소년 의상이 소개된다. 70년대 중반까지도 격식을 갖춘 "Ensemble" ("Set-Garderobe")이 주로 소개되었다. 그 후 포스트모던 시대에 접어들면서 다양화와 개인화의 특징이 청소년의상에 반영되었다. "BRAVO"도 유행 경향을 소개할 뿐만이 아니라 단품을 위주로 소개하면서 "mix & match"라는 표현과 함께 포스트모던시대의 해체, 절충, 재생 즉, "Bricolage" 개념을 강조한다. 70년대까지 일부 하위 문화 집단에서나 관찰되었던 이 개념은 80년대 이후 일반화되었다. 즉, 청소년들은 다양한 출처를 가진 스타일 (예: 운동복, 이국적 요소, 하위 문화적 요소, 복고적 요소)을 일정한 형식 없이 개성을 나타내며 연출한다. 그들은 각각의 스타일이 갖는 상징성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현상적인 스타일 차

용 즉, 기존의 스타일 해체와 조합에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유추해 볼 때 하위 문화 집단이 일상의 Context에 존재하던 미적 요소를 독자적으로 차용, 조합한 점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독일의 일반 청소년들이 하위 문화의 스타일뿐만 아니라 이들의 의복 행위 (Kleidungsverhalten)를 모방했다고 볼 수 있다.

기성세대의 "청소년화 (Jugendlichkeit)"나 "회귀적 사회화 (retroaktive Sozialisation)"라는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포스트모던 시대의 청소년기는 인생의 과도기라는 단순한 의미를 벗어나 적극적인 문화적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문화적인 면에서 이들의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참 고 문 헌

1차 자료

BRAVO, 1959-1994.

2차 자료

Baacke, D., Jugend und Jugendkulturen. Darstellung und Deutung, Weinheim-München 1987.

Bernett, H., Sport, in: P. Roe tling (Hg.) Sportwissenschaftliches Lexikon, Schorndorf, pp. 338-339, 1973.

Cremer, G., Die Subkultur der Rocker. Erscheinungsform und Selbstdarstellung, München 1991.

Brinkhoff, K.-P./W. Ferchhoff, Jugend und Sport. Eine offene Zweierbeziehung, pp. 30-34, 1990.

Glaser, H., Kleine Kulturgeschicht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45-1989, Bonn 1991.

Grob, M., Das Kleidungsverhalten jugendlicher Protestgruppen in Deutschland im 20. Jahrhundert, Münster 1985.

Sinus-Studie. Jugend Privat. Verwöhnt? Bindungslos? Hedonistisch? Opladen 1985.

Loschek, I., Mode und Kostümlexikon, Stuttgart 1987. Der Spiegel, "Spas haben", 1993년 46호, p. 143.

Wynands, R., Do the Reggay, M nchen 1995.

Weber-Kellermann, I., Der Kinder neue Kleider. Zweihundert Jahre deutsche Kindermoden, Frankfurt a. M. 1985.